

경주, 자동차 부품기업 2곳 유치... 산단 활성화·일자리 창출

태웅산업·수시스템과 투자협약
명계3산단 내 생산거점 조성 박차
125억 투자·42명 신규 채용 예정
공장신설·본사 이전으로 산단 활력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기반 강화



주낙영(중앙) 경주시장이 13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열린 '명계3일반산업단지 신규 공장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김필규(오른쪽) ㈜태웅산업 대표이사, 방예현(좌) 수시스템 대표이사 등 기업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경주시는 ㈜태웅산업, ㈜수시스템과 내남면 명계3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과 본사 이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3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열렸으며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김필규 ㈜태웅산업 대표이사, 방예현 ㈜수시스템 대표이사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업은 명계3일반산업단지 동일 부지 내 필지를 분할 활용해 신규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태웅산업은 약 7,920㎡ 부지에 77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을 신설하고 15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수시스템은 약 3,967㎡ 부지에 48억 원을 투자해 본사를 경주로 이전하

고 생산시설을 구축하며 27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 규모는 총 125억 원이며 고용 규모는 42명이다. 경주시는 이번 투자가 명계3일반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웅산업은 1998년 설립된 기업으로 2000년 경주 외동으로 이전해 자동차와 전자제품 부품을 생산하며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과 함께 성장해 왔

다. 자동차 내장부품과 흡차음 부품, 카페트 열성형 제품 등을 생산하며 현대·기아 등 완성차 업체와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수시스템은 2020년 경남 김해에서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자동차와 전자제품 관련 필터 및 자동차 부품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본사를 경주로 이전하고 자동차 부품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필규 ㈜태웅산업 대표이사는 “경

주시와 기업투자지원과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신공장 설립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이번 투자를 계기로 자동차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기업과의 상생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방예현(수시스템 대표이사)은 “경주시의 투자환경과 행정 지원 덕분에 경주에 본사와 생산기지를 구축하게 됐다”며 “지역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주 투자를 결정해 준 두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명계3일반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j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장애인투어 '나래버스' 정기 운행

부산시가 장애인의 관광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시티투어 '나래버스' 정기 운행 시범 사업에 착수했다. 이달부터 매주 화·수요일 주 2회 운행되는 나래버스는 부산의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는 2개 코스로 나뉜다.

동부산권은 부산역을 출발해 유엔기념공원, 해운대해수욕장, 용두산공원을 거치며 서부산권은 부산역에서 임시수도정부청사, 태종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등을 경유한다.

나래버스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 버스로 운행되는 장애인 전용 시티투어 버스로, 부산시가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하동군 화개장터 벚꽃축제 27일 개막

경남 하동의 대표 봄 축제인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화개면 그린나래공원과 삼리벚꽃길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27회째다. 지난해 산불 피해로 축제를 열지 못했던 만큼 올해는 프로그램을 더 알차게 꾸렸다. 27일 오후 6시 개막식과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28일에는 '벚꽃노래자랑'과 '벚꽃 DJ 뮤직 페스티벌', 29일에는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차례로 진행된다. 플라마켓, 차 시음 행사, 별맛 부스 등 먹거리·즐길 거리도 벚꽃길 곳곳에 펼쳐진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경북, 297억 투입해 29곳 도시숲 조성

14개 시군 26만5000㎡ 규모 추진
기후대응·바람길숲 등 생활권 확충

경북도가 올해 297억 원을 투입해 14개 시군 29곳에 26만5000㎡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자체 도시숲'은 42억 원을 들여 추진된다. 도심 유휴부지와 생활권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녹색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146억 원을 들여 탄소흡수 기능 강화와 도시 열섬현상 완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도시바람길 숲'은 100억 원을 투입해 외곽 산림의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통로를 조성해 대기순환을 촉진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역할을 하도록 추진된다.

'자녀안심 그린숲'은 9억 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 도로변 숲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8억5200만 원을 들여 도내 566곳의 도시숲을 대상으로 생태적 건강성과 기능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9억 원을 들여 도시녹지관리원 36명을 신규 채용해 시설물 점검과 식생 관리를 전담하게 할 계획이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도시숲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 위한 핵심 녹색 기반시설”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도시숲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표 측정으로 도민이 일상 속에서 숲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홍성군, LED돔 복합문화공간 조성

실시설계용역 착수, 내년 준공 목표

홍성군이 전국 최초로 한국형 LED 돔 형태의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4차 산업 기반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나섰다.

군은 16일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미래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홍성 역세권에 총사업비 195억 원(국비 90억 원, 군비 105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며 부지면적 6,165㎡, 연면적 2,700㎡, 지상 3층 규모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내 디지털 콘텐츠 전시·체험 시설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단순 관람 중심 전시관이 많은 상황이다. 반면 몰입형·참여형 디지털 콘텐츠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지역 거점 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홍성(충남)=양대승 기자 zzica@



홍성군이 추진 중인 전국 최초 '한국형 LED 돔' 조감도.

이에 홍성군은 대형 LED 스크린을 활용한 돔 형태의 멀티미디어 전시·체험 공간을 조성해 케이팝 디지털 공연, 몰입형 스포츠 생중계, 리마스터링 영화 상영, 디지털 힐링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K-콘텐츠와 실감형 기술을 결합해 흥성을 디지털 문화콘텐츠 거점으로 육성하고 체험형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나주, '1박 2득' 관광 인센티브 호응

시행 보름 만에 2000명 접수

전남 나주시가 숙박관광객 인센티브로 체류형 관광 전환에 가속을 보인다.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 중인 숙박관광객 인센티브 사업 '나주 1박 2득'이 시행 초기부터 높은 참여를 보이며 체류형 관광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한 가운데 3월 15일 기준으로 접수 인원이 2000명을 넘었으며 현재까지 집계된 지원금 규모는 5000만 원이다.

'나주 1박 2득'은 나주를 잠시 들르는 도시가 아닌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

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 체류 유도 사업으로 나주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한 편의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동행 인원 기준에 따라 최대 15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지급 방식은 나주사랑상품권 또는 나주몰 포인트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황포돛배 할인권과 빛가람전망대 모노레일 이용권을 함께 제공해 숙박과 관광,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체류형 관광이 실제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술거리미술관' 관람객 15만명 돌파

경주-경북문화관광공사 APEC 특수 타고 개관 후 최대 성과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경주 술거리미술관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 문화 교류의 장으로 주목받으며 개관 이후 최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와 경북문화관광공사의 공동 운영 아래 진행된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예술 생태계를 확장하고 국제적 문화 교류 공간으로서 역할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열린 APEC 2025 경주 정상회의 기간 동안 특별기획전 '신라

한향(新羅韓香)'을 선보이며 한국미학의 정수를 세계에 알렸다. 전시에는 소산 박대성 화백의 수묵 대작 '코리아 판타지' 등이 소개됐으며, 캐나다 총리 부인 다이애나 폭스 카니 여사를 비롯해 17개국 대사 부인 등 주요 인사들이 방문해 관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박대성 화백과 카니 여사의 만남은 신라 문화와 한국 예술의 가치를 국제 사회에 알리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됐다. 관람객 증가세도 뚜렷했다. 2025년 경주술거리미술관 연간 관람객은 15만3천여 명으로, 2024년 10만9천 명보다 약 41% 늘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부산시립박물관 개항 150주년 체험교육 운영

올해 개항 150주년을 맞은 부산의 역사를 초등학생들이 박물관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부산시립박물관은 주말 교육 프로그램 '주말엔 박물관'의 올해 주제를 '미지의 부산-150년 전 국제도시 부산으로 떠나는 시간여행'으로 정하고, 3월 21일부터 6월까지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화차별로 초등학생 25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40분까지 총 4회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어린이가 직접 여행자가 돼 개항기 부산을 탐험하는 스토리 방식으로 구성됐다.

/부산=이도식 기자